

## 대한제당(주)

### 2007년 무지개사료상담소장 회의 개최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대표이사 백경목)가 2007년을

“First choice & Success”의 해로 설정하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는 지난 1월 24일 전국의 상담소장을 대상으로 백경목 사장이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2007년 전국 상담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해를 위한 힘찬 출발을 결의했다.

“Value Innovation(가치혁신)”이라는 기치아래 품질우위와 서비스 우위의 전략으로 판매목표 71만톤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으며, “Value Innovation(가치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한 세부사항으로 Brand, Ubiquitous, Clean Factory & Efficiency의 전략을 세우고 품질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 고객성공 우선주의, 전천후 판매를 실행하여 2007년에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격려사를 통해 백경목 사장은 급변하는 축산 환경에서 변화를 주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안성시, 농림부 선정 가축방역 ‘최우수’ 시로 선정

지난 2월 6일 2006년 전국 가축방역 최우수지역으로 안성시가 선정이 되었고, 또한 안성시의 대한

제당(주) 무지개사료 시험농장이 가축방역 우수농장으로 선정되었다.

안성시는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4년 연속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질병의 발생이 없었고, 28개소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일제소독을 실시하는등 “가축일제소독의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특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소부루셀라병의 경우 다른 지자체보다 현격히 발생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이에 안성시의 축종별로 10농가씩 우수전염병관리 농장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한제당(주)무지개사료 시험농장에는 우수농장 상패와 꽃말을 주어 주위농가의 모범사례로 삼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동희 안성시장은 “선진 축산의 고장인 안성에서 이와 같이 훌륭한 축산의 지도자들과 같이 도농복합도시를 이루며 자랑스러운 축산농가와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 안성시험농장은 매일 양돈장소독 및 방역활동을 하였으며 주중 1회는 농장 전체의 소독 및 주변 도로까지 소독을 하였고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축산의 기본이 되는 방역활동에 전직원이 참여했다.

## 우성사료(주)

### 경주검정회, 낙농대학 입학식을 실시

우성사료가(대표이사 지평은) 지난 2월 13일 제2사업본부(표광수 본부장/경산공장)주관으로 경주농업기술센터에서 황규원 학생대표(경주검정회 회장)를 포함한 경주 검정회 회원60명의 입학식을 실시했다.



이상락  
경주낙농  
협장은 축  
사에서 “우  
리 나라의  
낙농과 축  
산업이 어

려운 현실에 봉착해 있지만 결국은 낙농인 스스로가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낙농대학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하였다.

초청강사로 첫 강의를 맡은 조옥향(은하목장 대표)씨는 “한국 검정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며 83년 귀농과 함께 처음 시작한 낙농업을 통해 배운 자신의 경험과 여주 검정회를 조직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를 토대로 생동감 있는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이제는 2세대 경영에까지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언급하며 “낙농업의 블루오션을 찾아 후대에 물려주자”는 비전을 제시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낙농대학을 이끌 김건영 씨(우성사료 지역과장)는 2년간 진행할 교과목을 소개하는 가운데 10년 후의 낙농산업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며 소수 정예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환경에서 열린 마음과 배움의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가운데 진정한 배움의 자리가 될 것을 모두가 함께 다짐했다.

우성사료는 2002년 제1기 보령여성낙농대학 입학식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 제13기 고창여성낙농대학 졸업에 이르기까지 6년여의 여성낙농인 교육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 낙농인들의 열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급과정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 대한사료공업(주)

### 농업회사법인 조인주식회사 출자



대한사  
료공업주  
식회사(대  
표이사 김  
덕명)는 지  
난 1월 11  
일 대한사

료공업(주) 서울 본사에서 축산물 유통사업 활성화 및 업종 다변화를 기하기 위해 양계부화, 계란 가공 유통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조인(주)에 출자 및 사업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에서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새로운 사업 제휴관계를 수립하고 변화하는 축산업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통한 신규 브랜드 창출 및 다양한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대한사료는 조인(주)과의 사업적 전략제휴를 통해 기술 및 판매지원을 제공하여 영업력을 보강하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저변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63 영업전진대회 개최



대한사  
료공업주  
식회사(대  
표이사 :  
김덕명)는  
지난 1월  
26일(금)

~27일(토) 양일간 경기도 이천 소재 한국생산성본부연수원에서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낼 것이다”를

캐치프레이즈로 63회기 영업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사료는 2007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고객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활성화 및 개개인과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해로 만들자는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전진대회는 전 영업사원 및 스텝이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난해의 노고와 전 사원의 화합된 모습으로 2007년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급변하는 축산업계에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좀더 집중된 힘을 발휘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부터 먼저 새롭게 변화하는 한해가 되자는 데 뜻을 모으는 장이 되었다.

또한 지난해의 판매실적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흥겨운 한마당의 시간을 통해 영업사원들의 가져야 할 자세와 포부를 높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 주며, 고객의 NEEDS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대한사료임직원은 이날 2007년을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낼 것이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항상 고객의 중심에서 좀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으로 다가설 것을 약속하며 행사를 마쳤다.

### SCA 자돈 사료의 연결제품인 ‘트랜스라이트’ 출시

대한사료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한 고품질 대한사료의 SCA 자돈 사료의 연결제품인 트랜스라이트를 출시했다. 자돈사료의 세계적인 브랜드인 SCA의 기술로 탄생한 트랜스라이트는 면역능력을 회복시키고 외부 소모성 질병으로부터 돼지를 보호하여 폐사율을 최소화 줄여주는 사료다.

‘트랜스라이트’ 사료는 품질이 검증된 깨끗한 원료를 선별하여 사용되었으며, 자돈 사료와 젓먹이 사료의 중간에 해당하는 원료를 선택하여 젓먹이 사료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면역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비율을 강화하여 면역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영국 SCA사로부터 공급되는 특수 첨가제를 사용한 것도 큰 특징이다.

최신식 연구시설에서 수차례의 검증으로 통해 개발된 SCA 노하우의 에센셜 오일 (식물에서 추출한 기능성 물질)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살균할 수 있는 능력과 혈액의 순환 속도를 증가시키고 소화 장기를 보호하여 소화기 및 호흡기 질병을 예방한다.

트랜스 라이트에는 기능성 섬유소가 첨가되어 장 내 부패를 막고 유익균의 생성을 도와 미소화된 물질을 최소로 줄여 분변을 통한 감염을 줄여준다.

### 대한뉴팜(주)

#### 사업본부 임직원 대상 해외연수 실시



대한뉴팜(주)는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동물 의약 사업본부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와 하롱베에서 목표의식 확립과 영업 활성화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

경기 하락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위축된 축산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7.2% 성장한 매출 신장을 자축하며, 2007년 10% 이상의 성장목표를 달성하고자, 영업부 및 학술개발마케팅부 전원이 참석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을 실시했다.

베트남 하노이와 3,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하롱베이(유네스코 지정)를 유람선을 타고 참관하는 여행 시간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심신의 피로를 풀었으며, 단합의 밤 행사에는 팀별 장기자랑 및 화합의 시간을 가지고, 2007년 목표 달성을 통해 해외 연수의 기회를 더 많이 갖자고 결의를 다짐했다.

## 중앙진테크

### GMS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를 3월중 개최 예정

(주) 중앙진테크는 2007년 4월 서울우유 품평회를 대비하여 당사 우수 젖소 정액 공급업체인 미국 ABS GLOBAL, Inc 사의 Steven Pavelski와 Amy Knuth가 3월 중 한국을 방문하여, 국내 유수의 목장주들을 초대하여, 품평회 준비 및 지난 11월 새로 도입된 GMS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첫번째 강사인 Mr. Steven Pavelski는 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낙농 및 동물과학을 전공하였으며, Steven은 세계 여러 주요 품평회에 참여한 오랜 실제 경험으로, 출중한 실력을 가진 ABS사의 재원이다.

또한 ABS GLOBAL의 GMS(Genetic Management System)(유전관리시스템) manager인 Amy Knuth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품평회 심사 및 수태율 관리자로 근무 했었고, 현재는 ABS Global사에 GMS(Genetic Management System) (유전관리시스템) 팀 관리자로서, 세계적인 추세인 유전전달 프로그램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금번 기회를 통해 당사가 소개한 국내에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GMS(Genetic Management System) (유전관리시스템) 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또한, 국내 최우수 목장주들의 유전능력관리 프로그램의 공금증이 단번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조물산(주)

### 동조물산, 웰거 서비스 회의 참석



웰거사는 매년 독일 본사에서 서비스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2월 3일

~11일까지 10일간 개최된 웰거 서비스 회의에 동조물산(주) 정경호대리, 정상훈주임, 경기영업소 동조테크 성재수소장이 참석했다.

동조물산(주)는 매년 이 미팅에 참가하여 웰거사의 기계 트레이닝을 받아 왔으며, 올해도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제품을 보고 배우는 장이 되었다. 또한 세계 각 나라의 웰거사 직원들과 함께 웰거 베일러와 랩퍼 교육을 이수했다.

트레이닝을 받고 온 직후 본사에서는 트레이닝 받은 내용들을 동조물산(주)의 전국 영업소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지난 2월 20일부터 웰거 기계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순회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으로 동조물산(주)는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약속했다. ☺